

징병신체검사 중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검사 일정 배치 경험

林秀美(린쉬우메이), 莊世杰(쵡쓰지에)

국군 편퐁의원 이비인후과
수터과기대학 성과학 연구소
이소우대학 메니지먼트 연구소

서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모병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무병 징집이 주가 되고 지원 복무는 부차적이다. 한편 국방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대체 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중화민국 남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헌법 제 20조 [국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를 가진다]. (2) 병역법 제1조 [중화민국 남자는 법률에 따라 모두 병역 복무의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심신장애 또는 질환으로 복무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병역 면제(이하 면제)된다. (4) 5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자유형의 총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는 복무를 금지(이하 금지) 당한다. 징병신체검사는 공평하고 공개된 징병제도 하에서 각 징병신체검사 대상 남성을 장래의 임무와 훈련에 적합한 개별적 신체등급 기준에 맞게 분별, 선택한다. 생리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비교적 쉽게 신체등급을 구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심장병, 평발, 폐기능 이상, 청각장애, 골격/근육 기형 등의 경우이다. 하지만 성주체성장애를 가진 피검사자를 만났을 때는 수많은 불필요한 곤란과 분쟁을 피하고 동시에 순조롭고 신속한 신체검사 집행을 위해 반드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과거의 징병신체검사는 주로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모든 신체검사 대상자가 반바지를 입거나 윗옷을 벗고 2열 내지는 3열로 늘어서서 검사를 받는다.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완전히 보호하기가 불가능하며, 몇몇 검사항목의 경우에 간단한 칸막이를 둘 뿐이다. 게다가 체육관 2, 3층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고 심지어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징병 신체검사 업무를 해온 공무원들과 군의관들도 기존의 검사방식에 익숙해져서 설령 검토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경직된 정책과 대다수의 관행 때문에 개혁 건의는 결국 서류 작업으로 그쳐버리곤 한다.

몇몇 공무원들과 군의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징병 신체검사장에서 성주체성장애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처리하기 매우 곤란하고 종종 신체검사 절차를 순조롭게 완료하기가 힘들며,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라고 판정한다곤 한다. 또한 전체 과정 중에 신체검사장의 전 직원들과 다른 피검사자들이 비웃거나 수군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

내정부는 [징병신체검사 신정책] 을 민국 90년(2001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징병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병역행정을 주관하는 내정부가 실시하는 대외적인 정책으로 90년 6월을 기점으로 현행 징병검사 방식을 [직접 판단]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방하였다. 징병신체검사 개방은 중대한 개혁으로 그 결과 신체검사를 대학병원에서 접수하고 검사장도 병원이 정한 검사장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많은 검사 항목이 독립적인 진단을 받으며 전문의와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집행한다. 피검사자의 개인 정보 보호 면에서 혁명적인 진전인 것이다. 첫 검사는 지정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불합격자는 일괄적으로 재검을 받는다. 이를 통해 병역 기피 및 폐단을 막는다. 이를 통해 간소화된 정책과 국민 편의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병역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 과정의 설계

본 병원의 신체검사 행정 직원과 간호사 등 유관 직원들은 다년간 현정부 병역과의 신체검사를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고 모든 신체검사 과정에 대해 매우 익숙하다. 그렇기에 본 병원에서 징병신체검사 업무를 받았을 때 징병신체검사 신정책에 따라 병원 설비와 인원 배치를 고려하고 현정부 병역국 업무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징병 신체검사 일정을 정하였다.

접수(신분 및 기본자료 검사) -> 환복(반바지 및 두루마기) -> 흉부 X레이 -> 혈액, 소변 -> 심전도 -> 신장, 체중 -> 혈압, 맥박 -> 치과 -> 내과 -> 외과 -> 안과 및 시력, 색맹 -> 이비인후과 및 청력 -> 정신과 -> 자료 처리 -> 검사 완료

모든 피검사자들은 순조롭게 이상 과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5월에 한 여자옷을 입은 어린 피검사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인이 맞음이 확인됐다. 이에 상담을 해 본 바, 이 피검사자는 초등학교 졸업 전에는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중학교 이후에 점차적으로 위화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예절 교육 규범 아래서는 이상함을 드러낼 수 없다가 대학에 간 이후 행동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특히 교수들과 학생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지금은 오히려 여성적인 모습을 대담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피검사자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동시에 상의를 벗어야 하는 흉부 X레이, 심전도 및 외과검사를 받기를 거절했다.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 성심리이상으로 추정된다 판단하였기에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 우선적으로 정신과 검사장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성주체성장에 진단을 내렸고 이에 이 피검사자는 다른 피검사자들과는 다른 동선으로 검사를 받게 하였다.

피검사자 본인의 의견에 따라 자격 있는 간호원의 동석 하에 심전도, 흉부 X레이 및 외과, 비뇨기과 생식기 검사를 하였다. 그 후 피검사자들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이 성주체성장에 피검사자가 다른 피검사자들과 같은 동선을 따라 다른 항목들의 검사를 하였다. 하지만 그의 앞 뒤로 다른 피검사자들과는 약 5명 분의 시간차를 두고 모든 과정에서 자격 있는 간호원이 동석하게 하였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이 피검사자는 본 병원이 개별적인 과정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검토 회의에서 정신과 의사와 신체 검사과 간호원들, 행정직원들의 토론을 거쳐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를 만났을 때 검사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다.

접수(신분 및 기본자료검사) -> 정신과 -> 혈액, 소변, -> 신장, 체중 -> 혈압, 맥박 -> 치과 -> 내과 -> 안과 및 시력, 색맹 -> 이비인후과 및 청력 -> 환복(반바지 및 두루마기) -> 흉부 X레이 -> 심전도 -> 외과 -> 자료처리 -> 검사완료

본 병원이 징병 신체검사를 담당한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4명의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를 만났는데 상술한 검사과정대로 처리하였고 모든 검사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았고 앞서 처리한 경험도 있었기에 처리과정이 모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피검사자들에게 간단한 만족도 설문은 한 결과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 및 신체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신체검사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검토

매년 약 20만명의 남성이 징병신체검사를 받는데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검사 후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는 약 2.29%이며 그 중 정신과 질환은 면제 판정자 중 4~6%이고, 그 중 성주체성장애자는 15~20%에 이른다. 이를 계산하면 매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약 50명의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를 만났을 때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서, 특히나 인권을 제일로 삼는 환경에서, 공권력 집행이면서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징병 신체검사 시에 수많은 불필요한 곤란과 분쟁을 피하고 동시에 순조롭고 신속한 징병신체검사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적합한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검사에 참여하는 개별 단위가 모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성주체성장애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성주체성장애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별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고 더 나아가 성별 역할과 성별 차이가 있다. 성별차이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신체 생리상의 성별로 성적 특징으로 결정되며 남자 아니면 여자이다. 반면 성별 역할은 비교적 불명확하며 문화, 심리, 관습적인 의미를 갖고 사회적으로 특정성별에 속하는 행위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남성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다, 여성은 나긋나긋하고 예쁘다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신체적인 성별과 성별 역할이 일치하는 것은 대다수 사회 군중의 요구이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배척, 격리, 고립과 다중의 압력, 심지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유형을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성주체성장애라 부른다.

성주체성장애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알지 못한다. 다만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성장 환경 및 가족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성주체성장애는 아동기와 성년기 양 단계로 구분되며 아동기는 2~3세 무렵에 나타나고 여자아이가 남성화를 원하거나 남자아이가 여성화를 원하며 지속적으로 복장 문제와 성 전환을 요구한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성주체성장애의 증상, 강도 및 과정도 점차 변화하여 더 명확해지거나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한다.

성주체성장애는 복장도착증, 성전환증 및 동성애를 포함한다. 복장도착증은 어떤 개인이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이성의 복장을 입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더 나아가 성

적 흥분과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그저 행위예술이나 생활상의 필요 때문에 이성의 옷을 입거나, 나아가 그 개인이 있는 곳의 문화 관계 상 특정 시간에만 이성의 옷을 입고 개인적 욕구와는 큰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복장도착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이성의 옷을 입는 것도 복장도착증으로 보지 않는다. 성전환증이란 한 개인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리적 성별에 불일치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성별을 바꾸고자 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오직 생활상의 요구나 다른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적절한 심리검사와 의학적 조치를 받지 않고 갑작스레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도 성전환증으로 보지 않는다.

성주체성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의 생리상의 성별에 불편을 느끼고 자신이 다른 성별이어야한다고 강렬히 원하며 전통적으로 그 성별에 속하는 성별역할을 하기를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다른 성의 성별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과도하게 강조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MTF임을 증명하고자 일반 여성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 등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성별역할에 대한 관념이 점점 더 모호해짐에 따라 중성적 또는 다른 성별로 꾸미는 것이 점차 젊은 세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성주체성장애자가 용감하게 징병신체검사장에 올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주체성장애는 비록 지금의 개방적인 사회에는 점차적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보수적이고 퇴폐적인 군영 단체에서는 상당히 약자에 위치할 수 있기에 모든 징병신체검사 담당 공무원과 의사가 이를 깨달아야만 한다. 본인이 스스로 밝히거나 검사 직원이 성주체성장애라고 의혹이 들었을 때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고려하고 만일 진단을 확정받는다면 신체 검사 중에 성주체성장애를 가진 피검사자와 다른 피검사자들의 동선을 다르게 하여서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전체 검사 과정과 각 검사 항목 책임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 있는 간호원을 선발하여 검사 시에 동반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나중에 검사를 받게 하여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검사를 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적 특수한 검사항목, 즉 심전도나 비뇨기과 생식기 검사 두 경우에는 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가 우선적으로 검사받게 하고 자격을 갖춘 간호원의 동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평소의 교육훈련 및 사전작업 계획회의에서도 모든 검사 사무원과 간호원들이 이러한 피검사자들에 대해 인지하게 하고 검사 작업 시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며 비웃거나 부당한 발언을 하지 않게 하여서, 불필요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성평등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징병신체검사장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검사의 속도와 효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심도 있고 완전한 인터뷰나 의견 조정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 방면의 연구는 매우 적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내용도 아직 초보적인 결과이고 어떻게 검사과정의 재조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 확실하며 인권을 준수하는 검사 방식을 고안하여 해당 피검사자들을 만족시킬 것인지는 더 많은 학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